

현대중국번역의 초석을 다진 선교사 존프라이어와 한국기독교박물관 所藏 존프라이어의 漢籍들^{*)}

오 순 방^{**)}

제1절. 들어가는 말

19세기 말엽의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로 서구 열강의 침략과 내란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개혁과 지도자들은 국력 강화를 위해 정치·경제·공업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서구열강과의 비교에서 중국이 낙후한 분야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과학의 발전과 정치 제도의 개혁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정신 도덕적 측면을 중시해온 전통 가치관과 전통문화를 홀대하여 儒家를 중심으로 한 전통 사상이 외면당하면서 인문학은 한낱 선비들의 고리타분한 소일거리로 전락하였고 중국의 전통교육은 과거제도의 몰락과 함께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20세기 초반에는 량치차오(梁啓超)·루쉰(魯迅)·후쓰(胡適) 등과 같은 문인들이 대중을 계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의 적폐와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을 주도하였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국가 존망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방법을 제시하였으니, 19세기 후반부터 대두한 서구과학문명에 의한 부국강병론과 청일전쟁의 패전 이후 시작된 입헌군주제를 주창하는 변법자강운동 등 국가의 근본적인 政治體制를 改革하지는 政體改革論이 바로 그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淸日戰爭과 戊戌政變은 정치적인 분수령을 이루었고, 무술개혁에 실패하여 일본에 망명한 량치차오는 중국을 개혁하기 위해

*) 이 글은 숭실대학교 개교 103주년 기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2000. 11. 17)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한 것임.

**) 본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문학혁명이란 가치를 내걸고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량치차오의 이러한 개혁 활동은 당시의 지식인과 청소년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주었고, 일시에 국가를 개혁 하고 국민을 계몽할 방법을 모색하는 량치차오와 같은 개혁파 지식인들에게는 翻譯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들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이미 발표된名著와 당시 외국의 주요 신문잡지를 섭렵하여, 단시일 내에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재창작하여 《時務報》·《清議報》 등의 신문잡지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량치차오의 정채개혁운동과 문학혁명운동은 1900년을 전후한 十數年 동안 중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으며 그의 개혁운동의 핵심논제는 주로 서구와 일본에서 흡수한 것으로 번역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에서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추앙 받는 루쉰의 문학활동은 사실 1900년대 초 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루쉰은 1903년에 이미 그의 첫 번째 문예작품을 출간하였는데, 바로 중국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서구 과학소설을 번역했던 것이다.¹⁾ 그는 새로운 문체와 내용으로 현대문학의 서막을 열었던 창작활동 보다 이미 십 수 년 전에 외국소설을 번역하여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작품은 독자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좌절을 맛보았고,²⁾ 고독한 장시간의 준비를 거쳐 《狂人日記》·《阿Q正傳》 등을 발표하여 중국에 현대문학의 장을 열기 시작하여 가장 각광받는 작가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은 20세기 초반 중국 현대화의 중심에 서서 중국 인문학을 부흥시킨 문인들의 문학활동을 중심으로 인문학의 부흥과 번역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들은 과

1) 루쉰은 프랑스 루러 베르네 (Jules Verne)의 De La terre a la lune를 일본의 井上勤이 번역하여 1886년 9월 三木佐助가 발행한 《九十七時二十分間 月世界旅行》을 1903년 進化社에서 《月界旅行》이란 제명으로 번역하여 간행하였고, 베르네의 Voyage au Centre de La tere를 일본 三木愛花와 高須治助가 일어로 번역한 《拍案驚奇 地底旅行》을 1903년에서 1904년 사이에 《浙江潮》 제10기에 발표하였고 1906년 南京 啓新書局에서 출판하였다. 그 외에 루쉰은 1905년 미국 루이스 투오룬의 《造人術》도 번역하였다.

2) 루쉰은 南京의 水師學堂에서 鑛務를 공부하다 일본에 유학하여 센다이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문학가로 변신하였는데, 1903년 미륵의 단편소설 두 편을 번역하였고, 1909년 동생 周作人과 함께 안드레프·체홉·아룬포·모파상·싱크웨이즈 등 서구 유명작가의 단편소설 16편과 동화·우언을 공역하여 《域外小說集》을 출간하였다. 그들은 文言으로 직역하였으나 전혀 독자의 반응을 얻지 못했으니 루쉰 형제의 첫 번째 譯書는 출판 후 10년 동안 겨우 21권이 팔렸다고 한다. (阿英著, 《晚清小說史》, 上海: 商務印書館, 1980년, 283-284쪽.)

학으로 대표되는 물질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주창하여 균형이 깨진 당시 정치 사회의 개혁방향을 조정하여 과학의 중시와 더불어 인간생활의 근간이 되는 문자사용의 개혁과 인문정신의 중요성을 주창함으로써 5·4 신문화운동을 선도하였다. 그들은 과학문명에 경도되어 정신문화와 도덕가치관이 붕괴된 당시에 국민들에게 중심을 지키며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고 당시 서구과학문명에 압도되어 열등의식이 팽배한 중국인들에게 정신문명의 가치와 인간생활의 근본이 되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중국인에게 현대적 의식구조를 갖도록 하였다. 그들의 영향력은 20세기 중국의 현대화에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개혁이 화두로 등장하여 격변하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의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국경 없이 전개되는 개혁개방의 물결은 우리에게도 20세기 초반의 중국처럼 방향감각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데, 과학문명의 대두와 인문학의 몰락이라는 명제는 20세기 초반이나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량치차오·루쉰·후쓰는 대처방안으로 서구문명을 소개하는 번역을 그 수단으로 삼아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들 중국의 문인들에게, 특히 량치차오에게 직접 그 필요성을 인식시킨 학자가 바로 우리 숭실대학교와 인연이 있다면 더욱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번역이 우리 숭실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혹 연관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 논문은 량치차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중국 근대 번역활동의 주역으로써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동아시아의 과학문명 발전에 초석을 다졌고 중국의 장애자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던 잊혀져 버린 한 서양인을 위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그의 저술 64권이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에 연구를 시작하였고, 게다가 진행과정 중에서 “實事求是” 實學의 探究와 傳授를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 숭실대학교의 정체성과 교육방향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제2절. 현대중국문인과 번역의 영향

五四新文化運動을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 후쓰(胡適)는 40대에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아래와 같이 술회하고 있다.

둘째 형이 나에게 준 큰 바구니의 신서(新書: 새 경향의 책) 가운데에는 량치차오(梁啓超) 선생 일파의 저술이 펴 많았다. 그때는 량선생의 글이 가장 세력이 있던 시대였다. 그는 종족혁명을 제창할 줄은 몰랐으나 일부 젊은이들의 머리 속에 혁명의 씨를 적지 않게 심어 놓았다.…… 나는 정충의 교원 중에서 양치엔리(楊千里) 선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 한 번은 그가 우리 반에서 우루룬(吳如綸)이 산절(刪節)한 이엔푸(嚴復)의 번역본 《天演論》(영국의 자연과학자 토마스 헉슬리의 The Evolution and Ethics)을 사오게 하여 讀本으로 썼다. 그때에 나는 《천연론》을 처음 읽고 매우 신이 났다. …… 《天演論》은 출판된 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전국을 휩쓸어 마침내는 중학생의 讀書物이 되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헉슬리의 과학사와 사상에 있어서의 공헌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들은 단지 “優勝劣敗”의 공식이 국제 정치상에서 불러 일으켰던 의미를 이해할 뿐이었다. 중국이 여러 차례 패전한 뒤에 있어서는, 그리고 庚子年과 辛丑年의 큰 치욕을 겪은 뒤에 있어서는 이 “優勝劣敗, 適者生存”이라는 공식은 확실히 직면한 사태에 대한 일종의 엄중한 경고였으므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자극을 주었다. 몇 해 동안에 이러한 사상은 들불같이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과 피를 태워 나갔다. ‘천연(天演) — 進化, ‘물경(物競) — 生存競爭, ‘도태(淘汰) · ‘천택(天擇) — 자연도태 등등의 술어는 점차로 신문 잡지의 낯익은 단어가 되었고, 점차 일부 애국지사의 구두선(口頭禪)이 되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명사를 써서 자기나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를 좋아했다. 천중밍(陳炯明)은 호를 징춘(競存)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 동창생들이 있는데, 하나는 쑤징춘(孫競存)이라 하고, 하나는 양티엔저(楊天擇)라 한다. 나 자신의 이름 역시 이러한 기풍 밑에서 나온 기념물이다. 내가 학당에서 쓰던 이름은 후홍신(胡洪駢)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둘째형에게 내 字를 생각해 봐달라고 하였더니, 둘째형은 일변 세수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物競天擇 適者生存의 適字를 쓰는 게 어떠냐?” 하고 말했다. 나도 매우 기분이 좋아서 그 길로 ‘쓰즈(適之)’란 두 글자를 字로 썼다. 그 후 나는 글을 발표하는데 어찌다 후쓰(胡適)를 필명으로 썼고, 미국 관비유학시험을 칠 때에 비로소 정식으로 “후쓰”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나는 정충에서 이 일년 반 동안에 학과공부 이외에 약간의 책을 읽었다. 이엔푸(嚴復)가 번역한 《군기권계론(君己權界論—On Liberty)》은 이 시절에 읽었던 것 같다. 이엔푸 선생의 글은 너무 고아(古雅)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받은 영향은 량치차오의 영향만 못했다. 량선생의 문장은 명료하고 유창한 가운데 짙은 열정을 띠고 있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따라가서 더 가기를 바라면 그는 도리어 서버리거나 방향을 바꿔서 가버렸다. …… 나 개인으로는 량선생의 무궁한 은혜를 입었다.³⁾

후쓰는 자신이 성장하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저술로 이엔푸의 《天演論》과 량치차오의 문장을 들 수 있다고 회고하였는데, 량치차오는 1896년 《時務報》를 주관 하면서부터 많은 글을 발표하여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니 신문잡지에 게재된 그의 문장은 전국의 독자들을 사로잡아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사실 그는 전성기에 책 한 권을 3일 동안에 탈고하여 발표하는 등 놀랄만한 집필속도를 자랑하였다. 하지만 그가 발표한 신문지상의 문장은 상당수가 외국의 신문잡지에서 번역하였거나 재편집한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가 편집을 담당했던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時務報》에는 번역 專門欄이 있어 외국의 소식을 별반 시차 없이 직접 번역·게재하였다. 그는 외국으로 유학을 간 적도 없었고 여행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외국의 신문매체에 보도된 소식을 신속하게 중국에 소개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다른 언어로 쓰여진 외국신문과 전적을 보고서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었는가? 그는 또한 1898년 《譯叢政治小說序》를 집필하여 중국의 정치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서구와 일본의 정치소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국민을 계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정치소설을 처음으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그의 첫 번째 소설은 번역소설이었으며 중국의 개혁을 위해 입헌체제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을 계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소설을 번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중국 개혁의 모델을 제시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최초의 중국정치소설인 《新中國未來記》를 창작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소설이란 장르가 중국의 대중을 가장 손쉽게 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쓰기를 시도하였으며 그의 이런 글쓰기는 그대로 적용하여 망명지 일본에서 국내 독자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내었다. 그의 글들은 上海에서 修學하던 후쓰와 같은 청년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으며 지식인들을 각성시켜 사회와 시대의 여론을 조성하였고 계몽과 혁신의 대열에 합류케 하였다. 그러면 량치차오는 과연 어떻게 개혁의 화두를 제공한 번역과 언론활동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가? 량치차오는 廣東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전통식 교육을 받고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전통문인이었으며 그가 사사한 캉요웨이(康有爲) 역시 량치차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廣東사람으로 전통적인 환경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3) 후쓰 著·車柱環 譯, 《四十自述》, 을유문화사 을유문고 116, 1973년 6월 초판, 97~105쪽.

제3절. 량치차오의 번역활동

량치차오는 19세기 말 중국의 개혁과 근대화를 위해 서구문물의 수용을 통해 국민의 계몽을 주창하면서 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세인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번역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구 열강은 물론 섬나라 小國이라고 우습게 여기던 동양의 일본에게조차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열강에게 유린당하는 초라한 조국을 개혁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을 계몽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번역을 통해 앞서 있는 서구의 문물을 대량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며 1897년 〈論譯書〉라는 문장을 발표하였다.⁴⁾ 이 문장은 번역의 중요성과 번역인재의 양성, 어떻게 번역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논술한 문장이다. 그는 먼저 서방을 학습하려면 반드시 서방 각국의 정치·군사·경제와 법률제도에 통달하여야 하며, 이런 것들을 통달하려면 그것에 관한 전적을 탐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진실로 그 서적을 읽지 않고 그들의 외견상의 모습에 근거하여 그들의 장단을 추측하려 한다면 비록 大賢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당시의 중국에는 서양어로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몇 사람도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이 폐단을 타개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첫째는 전국의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서양어문을 모두 익히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양의 유용한 서적을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도 缺해서는 아니 된다. 첫째 방법은 그 실제 효과가 분명 10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서적 한 권이 나오면 천하의 뜻 있는 선비들이 모두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수년 사이에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량치차오는 서방을 학습하려는 급선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먼저 서양전적을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서적을 번역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西學書目表·序例〉에서 “그러므로 국가가 自強하려면 서양서적을 많이 번역하여 본으로 삼아야 한다.”⁵⁾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譯書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

4) 이 문장은 1897년 발간된 《時務報》第27·29·33冊에 수록된 〈變法通議〉 중의 한 章이다. 이 章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인용문은 모두 이 문장에서 인용한 것임.

5) 〈西學書目表·序例〉, 《時務報》 제8권.

라 譯書와 維新變法の 추진을 연결시키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의 성공한 선례를 제시하였다. “지금 빨리 서적을 번역하지 않으면 소위 變法이란 것은 완전히 빈말이 될 것이며 국가는 하나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지금 日本의 讀書會에서는 무릇 서양의 중요전적을 번역한 譯本이 없는 것이 없다. 때문에 그들의 變法은 본원을 통찰하여 실행하자마자 적중하여 마침내 강국이 되었다. 어찌 크게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니겠는가?”⁶⁾ 량치차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역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동서양이 충돌하면서 보수세력이 정치를 주도했던 당시 중국의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량치차오는 서적 번역의 세 가지 진행조건을 제시하였다. “때문에 금일에 譯書를 말한다면 마땅히 세 가지 방법을 세워야 한다. 첫째, 마땅히 번역해야 할 서적의 선정. 두 번째, 公譯의 例를 정하는 일. 세 번째, 번역 능력을 갖춘 譯才의 양성이다.” 그는 번역할 서적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 중국의 官方機關 예를 들면 同文館과 江南製造總局 翻譯館에서 번역한 서적은 “兵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서양인의 부강함은 모두 군사(兵)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였다. “지금 서적을 선택하여 번역하려면 마땅히 西人の 군사력이 강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인데, 그 강함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강한 연유를 배우지 않고 다만 그 강한 것을 배우려 하니,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서 도리어 후진하는 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량씨는 “兵學에 관한 서적은 설사 번역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시급히 번역해야 할 서적은 어떤 책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서방의 법률, 정치, 역사, 교육, 農學, 礦學, 工藝, 商務, 학술명저와 연감 등의 서적을 많이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기한 여러 서적은 대략적인 부류를 거론하였지만, 주의할만한 것은 그가 주목한 중점대상은 중국의 정치사회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전적 번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인 譯例는 주로 人名, 地名, 官制, 名物, 도량형과 譯音의 통일문제에 관한 것이다. 량씨는 두 가지 방안을 제기하였는데, 첫째는 音譯을 통일하는 것이니, 외국어는 英語를 기준으로 하고, 중국어는 北京語를 기준으로 하여 中西對照

6) <大同譯書局叙例>, 《時務報》第42冊.

표를 만들어 참조토록 한다. 두 번째는 對譯한 명사는 비록 간혹 聲讀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약정 통용되는 예에 의거하여 그대로 연용한다. 그는 또한 譯書의 두 가지 폐단을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중국어를 따라 번역하여 서양의 의미에 잘못이 생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어문을 따라 번역하여 중국어 발음이 경직되게 된 경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으니, 譯者는 중국어와 서양어문에 모두 정통해야 하는데, 古代佛經翻譯史에 큰 업적을 남긴 서역 승려 鳩摩羅什과 고승 玄奘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모두 중국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번역된 불경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역자”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면 최상이고, 중국어로 소개하여 “혀끝으로 전달하는 자는 하류이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량씨는 “무릇 서적을 번역하는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깊이 알게 하여 그 뜻을 잃지 않게 해야하니 비록 그 문장을 취하여 증감하고 뒤바꾸어 놓을지라도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역자와 저자의 학문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만이 가능하다.” 량치차오는 바로 역자는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역자가 비교적 높은 학문소양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자와 저자의 학문 수준이 대체로 비슷해야만 비로소 번역한 서적이 의역에 의한 것이든 직역한 것이든 좋은 번역본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이엔푸가 번역한 《天演論》을 예로 들고 있다.

두 번째 제기한 “譯才”에 대해서 량씨는 “무릇 역자는 중국어와 서양어 및 그가 번역하고자 하는 서적 속에 언급된 전문학문의 세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두 가지에 정통한 자는 그 다음이고, 단지 한 가지만 능통한 사람은 譯才라고 칭할 수 없겠다.” 여기에서 여전히 번역기는 반드시 적어도 번역할 두 가지 문자 및 역서와 관련된 전문학문에 정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번역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양성조건과 방법은 馬建忠의 의견을 따라 전문 翻譯學堂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량치차오는 日語의 轉譯을 통해서 西學의 概略을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량씨는 서양전적의 번역에 관한 칙경을 제시하였으니 日譯書籍을 통해 西學을 이해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과 우리는 문자를 같이 쓰는 국가로서

7) 馬建忠 著, 《適可齋記言》卷4, 《擬設翻譯書院議》.

원래 일본에서 한자를 차용해 사용해 왔다. 일본어가 널리 쓰이며 히라가나와 가다가나가 비로소 漢文과 섞여 쓰이고는 있지만 漢文은 여전히 문장의 十中六七을 점한다. 일본은 明治維新 以後로 서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서양의 서적 중 중요한 책을 거의 번역하였고 新著의 번역도 상당히 볼 만하다. 지금 일어를 배워 일본서적을 번역한다면 힘이 매우 적게 들고 實益은 매우 클 것이다.” 그는 〈論學日本文之益〉이란 글에서 “일본은 유신을 한 30년 동안 세계에 널리 지식을 구하여 번역하고 저술한 유용한 책이 수 천 중에 이르는데 특히 정치학과 資生學(경제학), 智學(철학), 群學(사회학) 등은 모두 민중의 지식을 開導하고 국기를 강건케 하는 급무이다.”라고 하였다. 많은 일어를 배우는 것과 서양언어를 배우는 난이도를 대비하여 중국인에게는 일어를 배우는 것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매우 쉽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⁸⁾ 량치차오가 주장한 “다섯 가지 쉬운 점”은 명치 전후의 근대 일어를 놓고 보면 그대로 실제에 부합된다. 특히 當時에 통용되는 漢文直譯體는 중국인이 배우기에 더욱 수월하다. 중국의 근대번역 작업에 있어 확실히 허다한 서방의 저술들이 日譯本을 통해 轉譯되었다.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 중국의 在日留學生이 창간한 유명한 《譯書彙編》에는 허다한 구미의 학술명저들이 게재되었다. 미국 보카스의 《政治學》, 프랑스 루소의 《民約論》, 몽테스큐의 《萬法精理》, 영국 요한 밀러의 《自由原論》, 스페인의 《代議政體》 등이 그것인데, 이 작품들의 中譯本은 결코 영어나 불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日譯本을 통해 轉譯되었다. 顧燮光的 《譯書經眼錄》의 통계에 의거하면 중국에서 1902년부터 1904년 사이에 외국서적이 모두 535종 번역되었는데, 그 중에 日譯本이 321종으로, 전체 역서의 60% 정도를 차지하였다.⁹⁾ 이 역서 중에는 물론 일본 학자가 동서양 학술을 연구하여 저술한 서적도 있으나, 일본인이 번역한 서방서적이 더 많은데, 때문에 19세기 말에 량씨가 제기한 日語로부터 轉譯하여 西學을 이해하자는 주장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안목이 있고 지혜로운 판단이어서 그 후 중국의 번역작업은 량씨의 견해대로 진행되

8) 〈東籍月旦·叙論〉: “音少一也; 音皆中之所有, 无棗刺扞格之音, 二也; 文法疏闊, 三也; 名物象事, 多與中土相同, 四也; 漢文居十六七, 五也。故黃君公度, 謂可不學而能。苟能強記, 半歲無不盡通者。以此視西文, 擬又事半功倍也。” 《飲沐室合集·文集之四》 中華書局 1989년 영인본 제1책, 제83쪽.

9) 郭延禮 著, 《中國近代翻譯文學概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8년 3월, 230쪽 참조.

있던 것이다. 이외에도 량씨는 국민을 계몽하여 국가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힘써 외국의 정치소설을 번역하여 출간할 것을 주장하였고¹⁰⁾, 외국저작은 비교적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왕왕 책 한 권이 나오면, 전국의 여론이 이 때문에 일변하였다. 미, 영, 독, 불, 이, 일 등 各國 政界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은 정치소설의 공로가 가장 높다.” “지금 외국의 名儒가 찬술한 것을 특별히 채택하여 지금 중국의 시국에 맞는 것을 순서대로 번역한다.” 이렇게 량치차오는 20세기 초기 번역문학의 발전과 번역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여 초석을 다졌던 것이다. 그리고 량치차오는 戊戌政變으로 1898년 9월 일본으로 망명하는 군함 大島號 선상에서 日本 柴四郎 東海散士의 정치소설 《佳人奇遇》를 읽고 漢文直譯體로 쓰여진 이 작품을 번역하여 일본 요코하마에서 자신이 창간한 《清議報》의 “정치소설”란에 연재하였다(《清議報》제1冊~제35冊). 아울러 《清議報》제1책에 《譯印政治小説序》를 발표하여 “정치소설”이란 소설유형개념과 소설창작을 처음으로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어를 약간 알고 다른 외국어는 몰랐으므로, 일본 森田思軒이 번역한 프랑스 Jules Verne의 日文譯本 《十五小豪傑》(Deux Ans de Vacances, 1888년)과 C. Flammarion의 단편소설 《世界末日記》를 번역하여 각각 《清議報》와 《新小説》에 발표하였다. 량은 1900년을 전후로 대량의 번역논문과 번역소설을 발표하여 1900년대 중국문단에 번역열기를 몰고온 도화선의 역할을 하여 당시 정치적 여론 형성과 중국문학의 현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제4절. 량치차오와 영국인 선교사 존 프라이어

그렇다면 량치차오는 어디서 이런 충격을 받았을까? 이 문제는 근대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다소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어 왔다. 그의 첫 번째 번역소설은 그가 일본으로 망명하는 배위에서 읽고난 뒤,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 그의 일어실력은 漢文直譯體로 쓰여진 日本小説을 겨우 해독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2년전인 1896년 《時務報》에 “루터통신”란을 비롯한 여러 칼럼에서 서양의 신문잡지 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었으니 이미 서양

10) 《譯印政治小説序》, 《飲沐室合集·文集之三》, 中華書局 1989년 영인본 제1책, 제24쪽.

11) 《紹介新著原富》, 《新民叢報》 제1호.

의 언론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時務報》에는 별반 時差 없이 외국에 관련된 각종 번역기사가 보도될 수 있었을까?

이편전쟁 이후에 이미 일단의 서양인들이 남경조약에 의해 개방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홍콩과 마카오, 광쑤우(廣州)와 상하이에는 이미 상당수의 서양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외교사절과 중국인을 상대로 무역을 하여 치부하려는 상인그룹, 그리고 중국의 선교를 위해 들어온 선교사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洋務運動에 참여하여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상당한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淸朝는 아편전쟁 이후 1860년에 英佛연합군에게 패퇴한 뒤로 자신들의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고 군비의 증강을 피하기 위해 洋務運動을 전개하였으니, 바로 1860년대에 상해에 江南製造局을 세워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문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江南製造局에서는 서양의 무기를 수입하고 일련의 무기와 선박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사용하고 서양의 과학문명을 배우기 위해 서양인을 초청하여 기계제조와 더불어 서양전적을 번역·출판했는데, 1860년대 후반부터 대량의 전문서적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북경에는 同文館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여 영어·불어·러시아어 등의 외국어와 외교·국제정치를 가르쳤는데, 同文館의 초창기 교수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이 동문관과 강남제조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외국인들은 상당수가 서양의 선교사들로 淸朝의 신임을 받았는데, 강남제조국에서 서양의 과학전적을 비롯한 중요전적의 번역을 담당할 번역관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출판·언론·번역의 각분야에 걸쳐 중국에 큰 족적을 남긴 선교사가 바로 존·프라이어(傅蘭雅)이다.

존·프라이어(傅蘭雅, John Fryer 1839-1928年)는 1839년 8월 6일 영국 잉글랜드 하이더에서 영국 성공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어려서부터 중국의 선교사업에 뜻을 품고 있었다. 프라이어는 브리스톨(Bristol)의 성제임스학교(St. James School)를 졸업하고 정부의 장학생으로 런던의 하이버리 사범대학(The Highbury Training College)에 진학하였다. 1860년 졸업과 동시에 홍콩의 성바오로書院의 校長으로 초빙되었다. 1863년 영국 성공회 존 샤우 목사(Rev. John Shaw Burdon)의 추천으로 북경 同文館에서 그의 후임으로 英語教授로 재직하였다. 1865년 상해 英華學校(Anglo-Chinese School)의 교장으로 轉任하였고, 1866년 《上海新報》의 편집장을 맡았다. 1868년 상해 江南製造局에 부

설된 翻譯館에 譯書作業을 주관하는 專門翻譯官으로 초빙되어 1896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분교(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東方語文學科 학과장으로 부임할 때까지 譯書作業을 주관하였다. 프라이어는 상해의 江南製造局에서 28년 동안 재직하였고, 그 사이인 1875년에 메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 麥華陀), 폴비스(Francis Blackwell Forbes), 윌리(Alexander Wylie), 唐廷樞(景星) 등과 중국 최초의 공과대학인 格致書院을 설립하였으며, 1876년부터 1892년까지 중국 최초의 과학잡지 《格致彙編》을 출간하였고 200여종에 달하는 서양서적을 중국어로 번역 출간하였다. 만일 總理各國事務衙門과 북경 同文館의 설립으로부터 淸日戰爭의 종결시기를 중국의 洋務運動(自強運動) 기간으로 본다면 프라이어가 중국에서 거주한 35년이란 기간은 바로 이 洋務運動 시기에 해당하며 그가 28년간 재직했던 江南製造局은 洋務運動의 중심기관으로 그의 번역작업은 근대중국의 현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그는 1896년 미국에 간 뒤에도 서양서적의 번역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그 후에 출간된 譯書도 10여종에 달한다.¹²⁾

프라이어는 또한 《萬國公報》라는 기독교계의 신문에 다수의 문장을 기고하여 중국사회의 積弊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格致彙編》과 《萬國公報》 같은 잡지는 당시 사실언론매체가 전무한 중국에 신문잡지가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으니 청일전쟁에 패배하고,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인 1896년에 량치차오가 《時務報》를 주관할 때에 上記한 서양선교사의 신문잡지는 이들에게 언론활동의 모델이 되었다. 프라이어는 또한 중국을 계몽시키기 위해 대중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사회를 소재로 하는 소설작품의 창작을 권하는 〈求著時新小說啓〉라는 소설창작공모를 1895년 5월에 《萬國公報》第77冊에 게재하여 거액의 상금을 걸고 당시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신소설의 창작을 고취시켰다. 그 결과 모두 162종의 작품이 응모하여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는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금만 포상하고 작품은 출판하지 않았다. 그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공모활동을 벌인 목적은 “時新小說”의 창작을 통해 사회의 惡弊를 타파하고 民心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량치차오는 7년 후

12) 李志剛 著, 《百年烟雲 滄海一粟》, 北京: 今日中國出版社, 1997년 9월, 44-45쪽.

인 1902년 바로 프라이어가 제창한 “時新小説”이란 용어에서 “時”字를 뺀 “新小説”이란 용어를 선택하여 중국 최초의 문학혁명운동인 “小説界革命”을 전개하였던 것이다.¹³⁾ 바로 량치차오의 小説界革命과 그가 주도한 신문잡지를 매개로 한 계몽운동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전개한 선교운동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으며, 량치차오는 프라이어의 계몽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문학가가 아니며 특히 소설은 傳統文人들의 주목을 받는 문학장르가 아니었다. 그는 국민을 계몽시키려는 수단으로 소설을 선택했으며 小説의 通俗性과 傳播力에 주목하여 주창한 그의 소설계혁명은 20세기 초 중국인의 의식구조를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890년대에 개혁파 지식인들은 서양선교사들이 주도했던 廣學會와 강남 제조총국의 譯書를 많이 구독하였으니 캉요웨이의 글에는 洋人이 번역한 서양전적을 필독서로 추천하여 읽기를 권하고 있다. 당연히 캉요웨이의 제자인 량치차오는 江南製造局 翻譯館의 주관자인 존 프라이어의 저술을 읽었으며¹⁴⁾ 그가 기고한 《萬國公報》와 그가 간행하는 《格致彙編》의 글들을 탐독했을 것이다. 청일전쟁 직후인 1896년부터 량이 주필로 참여한 《時務報》, 그가 일본에 망명하여 1898년 이후 창간한 《清議報》·《新民叢報》·《新小説》 등 일련의 신문잡지 발간활동은 서양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대중과 지식인을 대상으로 전개한 언론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띤 것으로 선교사들의 신문잡지에 보도된 기사내용들은 량의 언론활동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프라이어가 주창했던 “時新小説”의 論調와 主張을 빌려다가 중국의 대중을 계몽하기 위해 小説界革命이란 口號를 표방하였고, 《論譯書》에서는 강력하게 譯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번역방안을 제시하였으니, 이는 프라이어가 제시한 역서방안의 기본논조에 그의 日語翻譯論을 더하여 당시의 중국사정에 적합한 번역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물론 량의 견해는 존프라이어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활동방향과 대체적인 견해에 있어 우리는 손쉽게

13) 拙著, 〈중국소설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친 西歐要因 探究〉, 《中國小說論叢》第6輯, 1997년 3월, 232-234쪽.

14) 량치차오는 《西學書目表·序例》(《時務報》第8冊)에서 프라이어와 應祖錫이 공역한 《佐治芻言》을 서방의 민생·사회·정치·법률·경제·관리·무역·금융 등의 지식을 아는데 중요한 서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당연히 江南製造總局 翻譯館과 당시 서양의 과학문물을 중점적으로 소개한 《格致彙編》을 주관하는 프라이어의 번역활동을 알고 있었다.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겠다. 존프라이어는 그의 중국거주기간 중에 언론·교육·출판·번역활동을 통해 중국의 근대화에 직접 관여하였고, 19세기 말엽부터 시작된 개혁운동에 활동방식과 방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제5절.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존프라이어의 譯著書

하지만 본 논문은 량치차오와 존프라이어의 번역활동과 그들의 관계를 통해 중국 근대화에 미친 번역의 영향관계만을 연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바로 우리 숭실대학교와 관련이 있기에 이들의 번역활동을 거론한 것이다. 왜냐하면 본교의 한국기독교박물관에는 일련의 漢籍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바로 프라이어의 저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프라이어의 譯著는 다음과 같다.

1. 0486 防海新論

希理哈 撰(英), 傅蘭雅 口譯(英), 華衡芳¹⁵⁾ 筆述. 活字本(木). 所藏本: 卷 6~7, 12~18.

2. 0488 水師操鍊 附卷

- 15) 華衡芳(1833-1902)은 無錫사람으로 字를 若汀이라 한다. 문장에 능하고 算數를 잘하여 저서 《行素軒算學》이 알려졌다. 그의 《筆談》은 일생의 역작으로 12권이 전한다. 《清史稿·疇人傳》 同治 4년(1865)부터 江南製造局에 근무하다 光緒 13년(1887) 翻譯館을 떠나 天津 武備學堂에 教習으로 부임하였고, 光緒 18년(1896) 常州 龍城書院의 院長을 역임하였으며 江陰 南菁書院의 院長을 겸임하였다. 華衡芳은 江南제조국에 재임할 때, 매케인·프라이어 등과 《金石識別》·《地學淺釋》·《海防新論》·《御風要術》·《海用水雷法》·《代數術》(25권)·《微積淵源》(8권)·《三角數理》(12권)·《代數難題解法》(10권)·《決疑數學》(10권)·《合數術》(11권) 등을 共譯하였다. 상술한 數學 6종은 모두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교과서이고, 《金石識別》과 《地學淺釋》은 지질학의 명저이다.
- 16) 徐建寅(1845-1901년)은 江蘇 無錫사람으로 字를 仲篋라 하는 과학자로서 중국 근대 과학발전의 초석을 다진 徐壽의 아들이다. 同治 3년(1864), 曾國藩과 李鴻章이 그를 江南製造局에 파견하여 자연과학서적을 번역하게 하여, 프라이어와 《聲學》·《電學》·《化學分原》·《水師操鍊》·《輪船布陣》·《炮와 鐵甲論》·《返規約指》 등을 공역하였다. 후에 天津製造局과 山東機器局, 福建船政局에 근무하였다. 1878년 주독일대사관 參贊으로 부임하여 英佛 등 유럽 각국을 시찰하였다. 1886년 金陵局에서 강철 제련과 후당총을 제조하였고, 1896년 湖北 火藥局의 督辦(총재)을 역임하였는데 1901년 화약을 試製하여 실험하다 폭사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造船全書》와 《兵法新書》 등이 있다.

英國戰船部 原書, 傅蘭雅 口譯(英), 徐建寅¹⁶⁾ 筆述. 活字本(木). 所藏本: 附卷1冊.

3. 0552 格致須知: 初集 8冊

Fryer John 著(英). 活字本(鉛). 光緒13年(1876)

天文須知, 地理須知, 地學須知, 地志須知, 化學須知, 電學須知, 光學須知, 聲學須知.

4. 0556 格致彙編

Fryer John 編. 活字本(鉛).

上海 格致書院 刊, 光緒 2년(1876)~光緒 7년(1881). 38冊.

소장본: 1年2卷, 1年5卷, 1年7卷, 1年8卷, 1年9卷, 1年12卷, 2年1卷, 2年2卷, 2年5卷, 2年6卷, 2年7卷, 2年8卷, 2年10卷, 2年11卷, 2年12卷, 3年1卷, 3年2卷, 3年3卷, 3年4卷, 3年5卷, 3年6卷, 3年7卷, 3年8卷, 3年9卷, 3年10卷, 3年11卷, 3年12卷, 4年1卷, 4年2卷, 4年3卷, 4年4卷,¹⁷⁾ 4年5卷, 4年6卷, 4年7卷, 4年8卷, 4年9卷, 4年11卷, 4年12卷.

5. 0592 測地繪圖

富路瑪 撰, Fryer John(傅蘭雅) 口譯, 徐壽¹⁸⁾ 筆述. 活字本(金屬). 1冊.

17) 《韓國基督教博物館 圖書目錄》에는 4年4卷이 없으나, 한국기독교박물관의 《格致彙編》所藏本을 열람한 결과 4年4卷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所藏 冊數는 《韓國基督教博物館 圖書目錄》에 기재된 37冊에서 38冊으로 늘어났음을 밝힌다.

18) 徐壽(1818-1884)는 江蘇 無錫사람으로 字를 雪村이라 한다. 道光·咸豐년간에 東南에 전쟁이 일어나자 과거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博物과 格致를 전념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일찍이 華蘅芳·吳嘉廉·龔藝棠 三人과 함께 木製汽船 건조를 시도하였는데, 기계의 測算은 주로 華蘅芳의 힘을 빌렸고 기계제조와 조립은 모두 徐壽가 주관하여 서양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은 채 수년만에 매시간 40여 리를 주행하는 50여 척의 길이로된 기선을 완성하여 曾國藩의 신뢰를 받아 그의 幕府에서 일하였다. 후에 江南제조국에서 船炮槍彈에 관한 많은 발명을 하였으며 서양서적의 번역을 주창하여 제조의 근본을 다지도록 하였다. 그는 華蘅芳과 많은 譯述을 출간하여, 일본에서 이를 듣고 柳原前光 등을 파견하여 역서를 구입해 가서 이를 모방하고자 하였다. 《上海縣續志·徐壽傳》《清史稿》에는 徐壽의 譯述로 《西藝知新》 및 續編·《化學鑑原》 및 續編·補編·《化學考質》·《化學求數》·《汽機發軔》 등 출간한 서적이 13종이 게재되었다. 그는 근대 중국화학의 초석을 다진 과학자로 일생동안 과학으로 종교에 반대하는 일관된 연구정신을 견지하였다.

所藏本: 卷6~8.

6. 0611 化學鑑原續編

蒲陸山 撰(英), 傅蘭雅 口譯(英), 徐壽 筆述. 活字本(木).

3冊. 所藏本: 卷3~8, 9~12, 16~19.

7. 0612 化學分原

蒲陸山 撰(英), 傅蘭雅 口譯(英), 徐壽 筆述. 活字本(木). 1冊. 所藏本: 卷3~5.

8. 0624 植物圖說

Fryer John(傅蘭雅) 著. 木板本. 4卷1冊.

9. 0675 汽機新制

白爾格 撰, Fryer John(傅蘭雅) 口譯, 徐建寅 筆述. 活字本(木). 1冊. 所藏本: 卷5~8.

10. 0676 汽機必以

蒲而捺 撰, Fryer John(傅蘭雅) 口譯, 徐建寅 筆述. 活字本(木).

3冊. 所藏本: 卷6~7, 8~9, 附卷.

11. 0716 製火藥法

利稼孫(英), 華得斯(英) 共編, Fryer John(傅蘭雅) 口譯, 鄭樹棠 筆述. 活字本(木). 3卷1冊.

12. 0717 西藝知新: 造管之法

Fryer John(傅蘭雅) 口譯, 徐建寅 筆述. 活字本(金屬). 1冊. 所藏本: 卷5~7.

《基督教博物館 圖書目錄》〈編著者索引〉의 “傅蘭雅” 란(116쪽)과 〈外國人著名者索引〉의 “傅蘭雅” 란(118쪽)에는 모두 0552(格致須知: 初集) · 0556(格致彙編) · 0624(植物圖說) · 0717(西藝知新: 造管之法)의 4종이 수록되어 있다. 傅蘭雅라는 人名은 傅蘭雅로 正正되어야 하고(도서목록 전체에 성씨 “傅”가 “傅”으로 誤記되어 있음), 이들 색인에는 상기한 8종의 전적이 더 첨부되어야 하겠다. 게다가 《基督教博物館 圖書目錄》에는 0506 《海道圖說》부분 이 “金約翰(John) 輯. 金楷理 口譯. 王德均 筆述. 活字本(木). 2冊”이라고 著錄되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표기된 John은 존 프라이어를 가리키며 同治 13년(1874)에 프라이어가 航海에 관한 책

《大江圖》와 《大江圖說》을 王德均과 같이 共譯하였고, 《海道圖說》을 수집하여 金楷理와 王德均에게 번역시킨 것이다.¹⁹⁾ 따라서 기독교박물관에는 프라이어와 관련이 있는 13種 64冊의 譯書가 있고, 그 중에 프라이어의 譯著書는 12種 63冊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한국기독교박물관의 譯著者 가운데 冊數가 가장 많이 소장된 것으로, 5종 이상 소장된 譯著者를 살펴보아도 양적인 면에서 존프라이어가 박물관 최대의 역저자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²⁰⁾

제6절. 존프라이어의 번역활동

上海 江南製造總局은 1865년 李鴻章이 奏請하여 설립하였는데, 1867년 李鴻章은 曾國藩·丁日昌과 회동하여 江南製造總局 안에 翻譯館을 부설하기로 결정하였고, 1868년 6월에 정식으로 개관하여 徐壽가 주관하였는데, 翻譯·格致·化學·製造로 나누어 각각 提調 1인 口譯 2인 筆述 3인, 校正圖畫 4인을 두었다. 웨이리(Alexander Wylie)와 프라이어, 알렌(Young John Allen), 맥고온(Daniel

19) 프라이어의 譯著부분은 《格致彙編》 제3년 제7권과 제8권에 수록된 《江南製造總局 譯西書事略》의 譯書書目과 《百年烟雲 滄海一粟》에 수록된 《傳譯館譯著一覽表》를 참조하였다. 하지만 《海道圖說》의 경우, 두 가지 著錄에 차이가 있어, 본 논문의 著錄은 《格致彙編》제7권 第9面の 譯書書目を 따라 訂正하였다. 위의 書目 중에 나오는 大江은 揚子江을 가리킨다.

20) 한국기독교박물관에 5종 이상 소장된 저자는 奇一(0201, 0216, 0281, 0326, 0330, 0337, 0342, 0533, 0534) 9종, 杜步西(0103, 0106, 0107, 0109, 0112, 0114, 0118, 0174, 0177, 0183) 10종, 梅文鼎(0558, 0579, 0582, 0584, 0585, 0586, 0587, 0589) 8종, 민아오스딩(0211, 0356, 0359, 0360, 0361, 0363, 0365, 0366, 0369, 0371, 0372, 0373, 0383, 0385, 0386) 15종, 蘇安論(0091, 0136, 0297, 0336, 0343) 5종, 안안도니(0272, 0367, 0368, 0387, 0388) 5종, 李漢(0008, 0009, 0010, 0508, 0869, 0870) 6종, 張志淵(0006, 0629, 0702, 0942, 0943, 0980) 6종, 丁若鏞(0019, 0020, 0042, 0065, 0447, 0448, 0484, 0518, 0519, 0663, 0664, 0878) 12종, 彼得(0210, 0217, 0357, 0258, 0259, 0260, 0557) 7종, 韓承坤(0163, 0198, 0285, 0540, 0542) 5종, 洪大容(0855, 0856, 0857, 0858, 0859) 5종 등 프라이어까지 모두 13명이다. 그중 10종 이상 소장된 역저자는 모두 세 명인데, 민아오스딩은 주로 천주교의 교리문답과 성경에 관한 해설서가 주종을 이룬다. 정약용의 경우는 0019와 0020이 모두 《雅言覺非》인데 동일 전적으로 판형의 크기(각각 29.3×20.2cm, 23.7×17.2cm)만 다르고 行數와 字數가 같은 필사본이다. 0447과 0448은 모두 《牧民心書》이며, 제목(0447은《牧民心書》1904년, 0448은《牧民心書正文》1905년)이 다소 다르고 간행연도가 1년 차이가 있으나 모두 京城 博文社에서 간행한 내용과 쪽수가 같은 판본이다. 때문에 정약용의 소장본은 10종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Jerome MacGowan), 크레이어(Carl T. Kreyer) 등의 외국인을 초빙하여 서양전적을 口譯하게 하였는데 洋書의 번역은 프라이어가 주관하였다. 중국인으로는 徐壽, 徐建寅, 趙元益, 李鳳苞, 王德鈞, 江衡, 鄭昌棧, 鍾天緯, 賈步緯, 李善蘭, 嚴良勛, 徐華封, 瞿昂來, 周郁雨, 俞世爵, 汪振聲, 于樹棠, 朱恩賜 등이 번역작업에 종사하였다.²¹⁾ 江南製造總局 翻譯館의 譯書活動은 주로 19세기 7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1900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는데, 아마도 1912년에 발간된 《葡萄種法》이 마지막 서적이었을 것이다.²²⁾ 1909년 翻譯館에서 출판한 《江南製造局譯書提要》에 수록된 書目에 근거하면 출판된 서적은 모두 160종이다. 翻譯館에서 譯書를 선택하는 기준은 당시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였는데, 江南製造局이 軍事工業機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工藝學 부분이 가장 많았다. 江南製造局에서는 선박을 건조하였으므로 증기기에 관한 책을 번역하여 참고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汽機發軔》·《汽機新制》(0675)·《汽機必以》(0676)·《兵船汽機》·《製機新法》등의 책을 번역하였다. 강남제조국에서는 火藥과 砲彈을 생산하였는데, 때문에 《克虜伯炮說》·《爆藥記要》·《製火藥法》(0716)·《克虜伯炮彈造法》·《克虜伯炮餅藥法》·《炮法求新》·《淡氣爆藥》 등의 서적을 번역하였다. 江南製造局의 譯書는 자연과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데, 당시에 확실히 영향력이 있는 서적을 출판하였으니, 예를 들면 프라이어와 華蘅芳이 번역한 《代數術》, 프라이어와 江衡이 번역한 《算式集要》, 프라이어 評·華蘅芳 述의 《三角數理》와 같은 책은 출판되어 각급 학교에서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프라이어 譯 徐建寅 述의 《電學》이 당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널리 알려져 계속해서 復印되었다. 프라이어 譯 王季烈 述의 《通物電光》은 1895년 독일의 과학자 루트겐(Routgen)이 X레이를 발견한 지 4년 만에 X광선이란 최신기술을 소개한 서적이다. 크레이어 譯 趙元益 述의 《光學》은 19세기 서방의 근대 光學을 중국에 전파시킨 주요 대표작이다. 化學 方面에서, 중국의 화학자와 化學史家들이 강남제조국에서 번역한 《化學鑒原》과 그 續編(0611) 및 補編, 《化學考質》·《化學求數》(모두 프라이어 譯, 徐壽 述)·《化學分原》(프라이어 譯 徐建寅 述)(0612) 등의 서적은 근대화학이 처음으로 중국에 전래되었던 19세기 후반에 중요한 작용을

21) 馬祖毅 著, 《中國翻譯簡史》,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1998년 6월, 342쪽.

22) 주 21)와 같은 책, 343쪽.

하였다. 그밖에 천문학·지질학 분야에 《談天》(웨이리 역 李善蘭 述 徐建寅 補充)·《測候叢談》(크레이어 역 華蘅芳 述)·《地學淺釋》과 《金石識別》(모두 맥고은 역 華蘅芳 술)이 번역되었고, 의학분야에서는 프라이어 역 趙元益 술의 《儒門醫學》·《西藥大成》이 있고, 舒高第 역 趙元益 술의 《內科理法》·秀耀春 譯 趙元益 述의 《保全生命論》·《濟急法》 등이 출간되었다. 사회과학 서적의 번역작업은 별로 많지 않아 역서의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政治類 譯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은 《佐治芻言》(프라이어 역 應祖錫 술, 1885년 출판)인데, 戊戌 이전에 서방 사회의 정치사상을 가장 계통 있고 가장 많은 편폭으로 소개한 서적으로 랑치차오가 서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서적으로 평가하였던 책이다. 史志방면의 《西美戰史》(李景鎬 역)과 교섭방면의 《公法總論》(프라이어 譯 汪振聲 述)은 해당 분야의 良書로 주목을 받았으며, 兵制분야의 《防海新論》(0486)은 1874년에 출판되어 1880년까지 모두 1,114冊이 판매되어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總理衙門에서는 沿海의 각 총독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上海에서 재차 重版할 것을 명령할 정도였다.²³⁾

프라이어는 28년간 江南製造總局 翻譯館에 봉직하면서 개인이나 혹은 공동으로 많은 번역을 하였는데, 자연과학분야에서 물리, 수학, 화학, 지질학, 천문학, 식물학, 동물학, 지도, 생리학, 해부학, 自然學에 관한 것들이 있고, 응용과학분야에서 製造, 工程, 測量, 의학, 위생, 항해, 농업 등이 있으며, 군사학분야에서 砲術, 防禦術 등이 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역사, 정치, 경제, 政府學 등이 있다. 이외에 각종 字典 및

23) 주 21)과 같은 책, 343-345쪽.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서책은 팔호 속에 박물관 編號를 써넣었는데, 모두 6권의 소장본에 대한 설명이 있다.

24) Adrian Arthur Bennett, John Frye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into Nineteenth Century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72.

프라이어의 번역서 210종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 통계는 Adrian Arthur Bennett의 上揭書와 王爾敏의 《上海格致書院志略》의 分類와 著錄에서 인용하였다.

自然科學: 물리 23종, 수학 18종, 화학 10종, 지질학·지리학·천문학 11종, 식물학·동물학 6종, 繪圖 2종, 생리학·해부학 1종, 기타 2종

自然學: 4종

應用科學: 製造 36종, 工程 測量 17종, 醫藥 衛生 15종, 航海 8종, 農業 6종, 기타 7종

軍事科學: 砲術 7종, 防禦 10종, 기타 7종

역사 및 사회과학: 법률 6종, 역사 3종, 정치경제 1종, 政府 1종 기타 5종

字典: 1종

名稱表가 있는데 26類 210여종에 이른다.²⁵⁾ 프라이어가 번역한 서양 과학기술서적은 洋務運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게다가 그가 번역한 정치, 경제, 정부 등의 사회 과학서적은 Kangyo-wei와 Rangchichao에게도 대단한 영향을 주었으며²⁶⁾ 江南製造總局에서 함께 번역했던 徐壽·徐建寅·趙元益·李善蘭·華蘅芳 등의 인물들은 프리어를 통해 西學을 접목했고 자연스럽게 그의 계시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프라이어는 1876년 2월(光緒 2년 正月)에 과학기술 신지식을 전파하는 과학잡지 《格致彙編》을 창간하였다. 영문명칭은 《The Chinese Scientific Magazine》이었으나 1877년 《The Chinese Scientific and Industrial Magazine》으로 개명하였다. 徐壽는 제1년 제1권의 《格致彙編序》에서 이르기를

프라이어선생은 영국의 通儒이신데, 중국에 온 지 10 여 년 만에 중국의 언어 문자에 통달하여 특히 과학에 관련된 여러 서양어문 전적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책을 골라 중국어로 번역하여 매달 1권씩 출간하였다. 대개 우리 중국인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치의 연유를 깨우쳐 여러 실용적인 측면에 쓰도록 하였다. 우리 중국인들은 열은 데에서 깊은 것으로 들어가 그 가리키는 바를 얻게 되니 유익한 정도를 어찌 측량할 수 있겠는가! 소위 사람들에게 유익하여 실용될 수 있는 과학으로는 天文·地理·算術·幾何·力藝·製器·化學·地學·金鑛·武備 등이 大宗을 이룬다.²⁶⁾

《格致彙編》은 창간된 이래로 1878년~1880년 프라이어가 일시 귀국할 때를 제외

25) Adrian Arthur Bennett의 前掲書, 72쪽.

26) 徐壽의 《格致彙編序》: “傅蘭雅先生英國之通儒也來遊中國十餘年通曉中國語言文字特將西文格致諸書擇其有益于人者翻譯華文月出一卷問世蓋欲使吾華人探索底蘊盡知理之所以然而施諸實用吾華人固能由淺入深得其指歸則受益定能量哉所謂格致之有益于人而可施諸實用者如天文地理算術幾何力藝製器化學地學金礦武備等此大宗也”(《格致彙編》제1년 제1권, 1876년 2월) 당시의 문장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우에서 좌로 썼으며, 문장부호를 쓰지 않은 글줄의 형태였다. 문장부호를 쓴 것은 1910년 이후의 일로써, 19세기의 전적은 당연히 글줄의 형태로 문장부호를 쓰지 않았으며, 지금 읽기 쉽도록 문장부호를 써서 다시 인용해본다. “傅蘭雅先生, 英國之通儒也。來遊中國十餘年, 通曉中國語言文字, 特將西文格致諸書擇其有益于人者翻譯華文, 月出一卷問世。蓋欲使吾華人探索底蘊, 盡知理之所以然, 而施諸實用。吾華人固能由淺入深, 得其指歸, 則受益定能量哉! 所謂格致之有益于人而可施諸實用者, 如天文、地理、算術、幾何、力藝、製器、化學、地學、金、武備等, 此大宗也。” 지면 관계상 이후로는 原文을 병기하지 않겠다.

하고는 1892년 停刊될 때까지 모두 7冊 60卷이 출간되었다²⁷⁾. 《格致集編》에는 대단히 광범위한 서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과학이론·과학방법·과학기기·천문·자연현상·물리·화학·수학·계산기·동물학·식물학·곤충학·지질학·지리학·지형학 등의 과학지식이 포함되었고, 공예기술에 관해서는 蒸機·炮船·채광기술·굴착기·방직기·제당·양곡 打作機·도예·벽돌제조·유리제조·피혁제조·제빙기·맥주제조·사이다제조·기차·철로·농업기기·타자기·인쇄기·제지·제철·시멘트제조·교량건설·성냥제조·사진기·환동기·잠수기술·전등·전보·전화·어획양식·제도 등이 게재되어 서방의 각종 과학기술을 소개하였다.

《格致集編》第1年 第1卷(1876년 2월, 光緒 2년 正月 간행)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格致集編序 雪村徐壽
 格致略論(附圖)(英國《幼學格致》中에서 번역)(未完)
 算圖器說(附圖)(《造算器家書》中에서 번역)
 日本效學西國工藝(英國《貿易編》에서 번역)
 汽錘略論(附圖)(英國《格物彙編》에서 摘出)
 玻性韌璃(美國《格致月報》에서 摘出)
 有益之樹易地遷栽 (美)瑪高溫醫士
 輪鋸圖說(附圖)
 西國造糖法(英國 工藝書에서 摘出)
 算學奇題(未完)
 互相問答(未完)
 格物雜說(各國 格物書에서 摘要)

27) 第1年 12卷 1876년 2월—1877년 1월(月刊)
 第2年 12卷 1877년 2월—1878년 1월(月刊)
 第3年 12卷 1880년 2월—1881년 1월(月刊)
 第4年 12卷 1881년 2월—1882년 2월(月刊)
 第5年 4卷 1890년(季刊) 春季·夏季·秋季·冬季
 第6年 4卷 1891년(季刊) 春季·夏季·秋季·冬季
 第7年 4卷 1892년(季刊) 春季·夏季·秋季·冬季

無火之燈
向日葵之用²⁸⁾
猴鳥記數說(光緒十九年 補稿)

이 잡지는 몇 편의 문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미의 서적이거나 잡지에서 문장을 摘出하여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장은 대부분 프라이어에 의해서 번역되었고 문장에 著者が 있는 경우에는 題名 아래에 저자의 성명을 明記하였고, 번역문인 경우에는 원문의 출처를 표기하여 譯文임을 알려 주었다. 때문에 목차를 보면 문장이 저술인지 아니면 번역문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제1년 제2권에는 한 편도 저자가 명기되거나 원문의 출처가 著錄되어있지 않아 譯文인지 著述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물론 세 편의 문장은 (續)이라 표기되어있어 전권에 이은 續編임을 알 수 있지만 그 밖의 항목은 문장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편집방식은 후에 량치차오가 《時務報》와 《清議報》 등을 편집할 때에도 그대로 답습하여 번역문인 경우, 譯者が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時務報》의 경우에는 편집자가 1인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어가 主編한 《格致彙編》에서처럼 譯著者を 간단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문장이 번역문인지 아니면 저술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데, 原典의 出處를 밝혀주지 않았고, 게다가 저자를 명기도 하지 않아 문장의 성격과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편집태도에서 야기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어쨌든 《格致彙編》은 초기에 단지 3,000부가 인쇄되었으나, 후에 판매량이 매년 증가되어 1876년에 24곳이던 판매처가 1880년 4월에는 38곳으로 늘어났으며, 그 해 연말에는 갑자기 70곳으로 급증하여 통상 항구 18 곳과 기타 대소 도시 21곳 등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판매되었다. 《格致彙編》은 관련된 과학기술지식 이외에 “상호 문답”란을 개설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서신으로 의문사항을 질의케 하여 독자를 紙上에 참여시킴으로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학자들의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28) 우리말 해석은 “해바라기의 용도”이다. 제1년 제1권 목차의 괄호안은 원문을 우리 말로 해석한 것이고, 그 외의 항목은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韌性玻璃”는 “性유리”로, “有益之樹易地遷栽”은 “유익한 樹木의 遷地栽培”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공헌하였다.

이러한 《格致彙編》이 한국기독교박물관에 38책이나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19세기 서구과학문물에 관한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江南製造總局의 번역활동을 종합하여 서술한 근대 최초의 번역론이 수록되어 있어 우리를 흥분시킨다. 프라이어는 1880년 6월부터 江南製造總局 翻譯館의 譯書作業에 대해 서술한 문장을 《格致彙編》에 게재하였는데, 《江南製造總局 譯西書事略》이 바로 그 문장으로, 프라이어는 모두 네 번에 걸쳐 강남제조총국의 洋書 번역 전말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 문장은 서문과 제1장〈論源流〉, 제2장〈論譯書之法〉(제3년 제5권), 제3장〈論譯書之益〉, 제4장〈論譯書各數目與目錄〉, 〈세 가지 書目에 대한 설명〉, 〈이미 간행되어 판매되는 書目〉(제3년 제6권), 〈간행되어 팔리는 서적과 이미 번역되었으나 아직 간행되지 않은 書目〉1(제3년 제7권), 〈이미 번역되었으나 아직 간행되지 않은 書目〉2, 〈駐華西人自譯各書目錄〉(제3년 제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장은 한 쪽이 21行×42字로 되어 있으며 모두 11面 22쪽이다. 프라이어는 먼저 翻譯館이 설립된 뒤 10 여 년 간 원근의 여러 독자들이 翻譯館의 설립연유와 서적번역 방법에 대해 누차 질의를 하여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는 작성 동기를 밝힌 뒤, 제1장에서는 번역관의 설립배경과 설립에 관여한 주요인물 曾國藩과 徐壽·華蘅芳의 활동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이어서 서양전적의 번역방법과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翻譯館의 譯書方法에 대해 말하자면 번역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洋人이 먼저 熟讀하여 의미를 이해하고 난 뒤에 중국인과 같이 읽는데, 洋書의 뜻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중국어로 읽어 나가면 중국인이 筆述하였다. 만일 어려운 곳이 있으면 중국인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상의하는데, 만일 중국인이 알지 못하는 곳은 말로 풀어 알게 하였다. 번역한 후에 중국인이 初稿를 고치고 윤색하여 중국어 문법에 맞게 하였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적은 출간에 즈음하여 중국인과 양인이 대조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서적은 대부분 대조할 필요가 없이 모두 중국인이 개정하였다. 중국인이 상세하고 세심하게 살필기 때문에 잘못

29) 존프라이어 저, 《江南製造總局 譯西事略》, 《格致彙編》第3年 第5卷, 1880년 6월.

서양인이 먼저 원서를 熟讀하여 의미를 이해한 뒤에, 중국인과 같이 읽으면서 洋인이 한 문장씩 읽어나가면 중국인이 이를 듣고서 筆述한다.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당시에 서양인의 口譯과 중국인의 筆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서적을 번역하였고, 전적의 중요도에 따라 潤筆의 강도를 달리 하였다. 이러한 번역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중국 상하이에서 간행된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漢籍들은 口譯者와 筆述者가 일렬로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어는 또한 科學技術의 專門名詞를 번역하면서 서양서적에서 명사가 자주 혼용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중국어에 이미 있는 명사: 중국어에 이미 있다고 생각되는 명사 하나를 설정하였으나 字典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첫째, 중국에서 이미 출간된 格致나 혹은 工藝 등의 서적, 그리고 이전의 천주교와 근래 기독교 선교사들이 저술한 格致·工藝 등의 서적을 찾아본다. 둘째, 중국의 客商이나 혹은 제조 공예에 종사하여 이러한 이름을 알만한 사람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2. 새로운 명사를 만든다. 만약 중국에 확실히 이러한 명사가 없다면 반드시 별도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일반 글자에 偏旁을 더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 여전히 그 本音을 읽는 것으로, 예를 들면 鎡·砵·鈔·砂와 같은 글자들이다. 둘째, 몇 가지 글자로 그 사물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을 새로운 명사로 삼는 것으로 字數가 적을수록 좋다. 예를 들면 氣氣·氳氣·火輪船·風雨表 등이다. 셋째, 漢字로 서양명사를 쓰는데 官音(北京音)을 위주로 하며 서양문자의 각각의 소리 역시 常用하는 같은 한자로 대신한다. 무릇 이전에 서적을 번역한 사람이 이미 관용으로 썼던 것은 따라서 쓰는데 중국인은 보기만 하면 서양 명사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이미 사용한 새로운 명사는 다만 잠시 시험삼아 써보고, 만일 후에 중국에 이미 쓰던 명사를 찾을 수 있거나 혹은 쓰던 명사가 타당하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다.
3. 西洋名詞彙編의 作中附錄: 서적 번역시 설정한 새로운 명사는 사물·인명·지명을 막론하고 모두 수시로 소책자에 수록하였다가 서적을 간행할 때에 책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하여 독자가 洋書나 洋人을 대조·조사하는데 편리하게 하였다. 각 서적에 있는 모든 명사는 마땅히 모두 모아서 큰 책으로 만들어 이후의

譯者들이 찾아 볼 수 있게 하여 名詞 사용에 혼동이 일어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

프라이어가 제시한 세 가지 譯名方法은 중국에서 지금도 외래어의 주요 번역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格致彙編》의 紙面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光緒 3년(1877) 자신이 주창하여 조직한 “益智書會”(The School and Text Book Series Committee)에서 譯名을 통일하기 위해서 알렌·웨이리·맥카티·매티얼 등과 각각 분야를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프라이어는 工藝分野의 譯名 수집을 맡아 통일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라이어의 이런 번역작업은 江南製造總局 翻譯館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니, 《金石中西名目表》(1883년)·《化學材料中西名目表》(1885년)·《西藥大成藥品中西名目表》(1887년)·《汽機中西名目表》(1890년) 등의 책이 출간되어 譯名을 지속적으로 통일시켜 나갔다.

프라이어의 譯名 統一에 관한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량치차오에 의해 계승되어, 고유명사와 술어 표준화의 문제는 더욱 구체화되었으니, 량은 《論譯書》에서 프라이어의 역명방식을 좀더 구체화하여 音譯方式은 人名과 地名의 번역에서 사용하고, 과학용어와 기술용어의 번역에 있어서는 新造語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20세기 초반부터 중국정부의 몇몇 기관에서는 명사표준화작업에 착수하였는데, 1918년 교육부와 중국과학단체, 몇 사람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科學名詞審查委員會”를 조직하여 의학·화학·물리·수학·식물학·동물학 등의 명사를 심의하여, 1931년부터 의학·생물·화학의 세 분야에서 3종의 詞典이 전후로 출판되었다. 또한 국가의 공식기관으로 1932년 “國立編譯館”이 정식으로 성립되어 37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명사표준화작업을 진행하여 1947년까지 中國科學名詞의 표준화작업을 진행하여 모두 97類로 세분하여 표준명사를 제정하였고 그 중 35類는 교육부에서 채택하여 반포하였다.³⁰⁾ 프라이어가 1880년에 주장한 譯名作業은 20세기 중반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채택되어 중국의 번역작업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시킴으로써 완전히 결실을 보게 되었다.

30) 1947년 教育部에서 반포 채용한 科學名詞는 化學·藥劑·藥物學·천문·물리·광물·기상·지질·해부·세균 및 면역·病理·電機工程·化學工程·보통심리학·사회·경제·교육·통계 등이다. 《中華年鑑》(南京, 1948년), 下冊, 1773쪽.

제7절. 초기 송실학당의 교재였던 기독교박물관의 존프라이어 漢籍들

그렇다면 기독교박물관에는 어떻게 12종 63책이나 되는 프라이어 역저서가 소장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기 송실대학교의 사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실사구시”의 “실학” 교육을 표방했던 송실학당의 개교와 관련된 19세기 국내외 정세와 근대교육의 교육방향에 대하여 《송실대학교100년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오자 조선왕조는 개항을 하게 되지만 내부의 모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데다 외세의 침략이 구체화되면서 위기의식은 높아진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상황 하에서 실학은 그 의의가 높고 평가되고 재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開化와 自強의 의미가 첨가되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은 그 자체에 近代指向 의식과 민족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수한 서양의 기술문명으로 무장된 외세의 침입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실학은 민족보존이라는 강렬한 민족의식의 발로였으며, 민족의 보존을 위해서는 근대 지향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자각과 의욕이 움트면서 그 대응책으로 개화와 자주라는 지표를 내세우게 된 것이다. 실학은 학문적 관점에서만이 아니고 선각적 학자들에 의하여 개화, 자강을 위한 정치·문화 활동의 정신적 자원으로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890년대에 들어오면 개화는 政派를 초월하여 민간 지식인들에게까지 침투할 정도로 민족의 공동 목표가 된다. 시급히 문명, 개화하여 자강할 수 있는 “실업(實業)의 학문”으로 실학의 뜻이 확대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시기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계초(梁啓超)는 “직접 실업에 효용이 있는 것” 즉 기계의 제조나 광학(鑛學) 또는 전학공정(電學工程) 등과 같은 기술분야와 “비록 순정과학(純正科學)이라도 應用學의 根底가 되는 학문” 곧 물리학, 화학 등을 실학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³¹⁾

1897년 창건된 崇實學堂이 “實事求是” “實學”의 교육을 표방한 것은 지극히 당

31) 《송실대학교100년사》, (1) 평양송실편 제1편 송실학당시기 제2장 학당의 창립,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7년 10월 10일, 70-71쪽에서 인용.

연한 일이며, 당시 아시아의 주요화두였던 문명·개화하여 자강해야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업의 학문”을 주창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한 교육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당시 교육을 주관했던 베어드교장은 1901년 미국장로교 한국선교부에 승실학당의 교과과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한문을 적지 않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입수할 수 있는 각종 한문교과서를 사용한다. 또 신구약성서와 19세기 특수사 등을 첨가할 터이며 수학에는 산학·대학·기하학, 과학에는 생리위생학요·식물학·동물학·천문학·화학·지리학·인문학·조선어문법·지도그리기·自在畵·작문·체조 등을 포함한다.³²⁾

승실학당의 교과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에 1900년과 1901년에 운영된 승실학당의 교과목과 담당강사명을 살펴보고, 그 아래에 교과과정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설명한 교과과정표를 아울러 열거하였다.

* 초기 승실학당의 강사명과 교과과정

1900 Dr. and Mrs. Sharrocks	성경, 만국역사, 미국사
Dr. Wells, Mrs. Lee	영국사, 19세기 역사, 수학
Mr. and Mrs. Moffett	산수, 대수학, 기하학, 심리학 기초, 위생학
Mrs. Baird	식물학, 천문학, 화학, 물리학, 지리학
Mrs. Hunt, Mr. Leck	성경지리학, 미술, 작문
1901 Mrs. Hunt, Dr. Wells	기하학, 대수학, 19세기 특수사, 음악, 수학
Mr. Blair, Mrs. Blair	위생학, 미술
Miss. Howell	체조, 심리학, 동물학, 식물학, 성경, 천로역정
Mrs. Baird, Mr. Swallen	지리학, 산수, 수학 ³³⁾

32) W. M. Baird, "History of the Educational Work",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9, pp 76~68. <승실대학교100년사> (1) 평양승실편 제1편 승실학당시기 제3장 학당의 발전 3) 교과과정 89쪽에서 재인용.

33) 각주 31)의 인용서, 90쪽의 教科目表에서 인용.

* 숭실학당 초기의 교과과정표

- 1) 성 경: 신약과 구약성서의 주요부분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의 번역본) 등의 기독교 문학작품
- 2) 어문학: 조선어 문법과 한문
한문은 四書를 중심으로 한 유학 경전과 《음빙실문집(飲室文集)》, 《자서조동(自西徂東)》 등의 중국 근대서적 그리고 글씨 쓰기
- 3) 수 학: 산수 및 대수, 평면기하
- 4) 과 학: 자연과학 기초, 기초물리, 화학, 동물학 및 식물학, 생리학, 위생학,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도 그리기, 천문학
- 5) 역 사: 만국역사(세계사), 동양사, 서양사, 특수사
- 6) 음 악: 가창과 음악이론
- 7) 미 술: 회화
- 8) 체 육: 체조³⁴⁾

이상의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존프라이어의 역서들이 대부분 숭실학당 초기의 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는 상해에서 “益智書會”를 조직하여 중국에서 필요한 각급 학교의 교재를 체계적으로 편찬하였고, 그가 주관한 《格致彙編》에서는 서양과학문물들이 대량으로 소개되었는데, 게재된 이들 문장은 상해의 格致書院에서 책으로 출판되어 중국 전역의 중등·고등교육 기관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추측의 증거로는 숭실학당 초기 교과목의 명칭이 상당부분 格致書院에서 간행된 서적명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算學·代數學·幾何學·格物學·天文學·地理學·動物學·植物學 등의 과목명이 그러하다. 특히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格致須知》(0552)의 初集 8冊(《天文須知》·《地理須知》·《地學須知》·《地志須知》·《化學須知》·《電學須知》·《光學須知》·《聲學須知》)는 자연과학의 초급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밖에 《化學鑑原續編》(0611)과 《化學分原》(0612)은 화학과목의 지침서이고, 《汽機新制》(0675)와

34) 각주 31)의 인용서, 91쪽에서 인용.

《汽機必以》(0675)는 기계학, 《測地繪圖》(0592)는 지도그리기, 《植物圖說》(0624)은 식물학의 교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괄호 안의 數字는 한국기독교박물관의 所藏書名編號이다.

또한, 한문과목의 텍스트로 사용된 두 가지 교재는 다름 아닌 중국 근대화의 주역인 량치차오의 저작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과 독일 선교사 언스트 파버(Ernst Faber)가 1884년에 공자와 예수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유학과 기독교의 연관성을 주장한 저술인 《자서조동(自西徂東)》이다³⁵⁾. 이 두 저술은 19세기 말 중국 개혁파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모두 한문체인 문언문 글줄로 쓰여졌으니³⁶⁾, 당시 학생들은 中國古文體의 저작을 직접 강독할 수 있었다는 증거로써 베어드교장이 언급한대로 중국어 서적을 가능한 한 입수하여 교재로 썼다는 보고를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한문교재로 사용했다는 량치차오의 저작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은 崇實學堂의 교수들이 이미 번역문제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량치차오의 翻譯理論을 논술한 《論譯書》는 중국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 최초의 사설신문 《時務報》에 연재되었지만 후에 바로 이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에 수록되어 있었으니³⁷⁾ 崇實學堂에서는 존프라이어의 《江南製造總局譯西書事略》과 더불어 량치차오의 번역문장도 함께 학습하였으며 량치차오의 翻譯觀이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논증에 의거하면, 존프라이어의 역저서는 초기 승실학당의 교재와 지침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과학과 인문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장을 게재한 《格致彙編》은 승실학당의 교육목표인 실학을 교육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학생들의 한문실력으로 解讀이 가능했던 文言體 中國典籍들은 이렇게 崇實學堂에 유입되었지만 가르치는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 독해능력 장애

35) 顧長聲 著, 《傳教士與近代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5년 제4판, 191~193쪽.

36) 중국어 문장에 문장부호를 쓴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며, 전국적인 통행은 白話文運動이 진행된 1920년대 이후의 일로써, 그 이전에는 중국의 서적은 모두 문장부호를 쓰지 않은 글줄의 형식으로 저술·간행되었다. 19세기 말의 漢籍들은 당연히 문장부호를 쓰지 않은 한문체로 저술되었다.

37) 각주 4), 5), 6), 8), 10)의 인용문장이 모두 량의 저술로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와 교육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베어드교장의 교육지침으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한국어로 된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고³⁸⁾, 일제 치하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한문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이들 전적은 더 이상 교수와 학생의 구독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존프라이어의 漢籍들은 아마도 송실학당 초기에 유입된 교재용과 연구용 전적들로서 후에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線裝으로 장정된 한문체 중국전적, 그 역저자는 영국인 목사로서 선교단체나 기독교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19세기 후반 35년 동안 자력으로 교육사업과 번역·출판사업·언론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여 중국 현대화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 그는 1896년 미국 버클리대학 동방어문학과와 초대 학과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계속 중국어로 번역작업을 하였는데, 그의 譯書는 19세기 말에 이미 한국에 전래되어 송실학당의 교재로 사용되었고 한국의 근대교육과 서양문물의 전래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던 것이다. 그의 번역작업은 이렇게 초기 송실학당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사용되었고, 또한 지금은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최다 소장전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존프라이어는 박물관에 死藏되어 1세기를 잊혀진 채 묻혀왔고, 그리고 지금도 돌아보는 이 없이 문자 그대로 순수한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송실대학교에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이 세워진 것은 1970년대의 일이지만 그 초석은 존프라이어에 의해 이미 19세기 말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념과 교육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결코 밖에서 찾아와야만 되는 것은 아니며, 저속한 상업주의가 판치는 요즘의 대학사회에서 경제논리와 시류에 편승하는 대학개혁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실학”교육을 위해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송실의 교육이념과 가치정립을 위해 우리는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눈앞의 이득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학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초기 송실의 교육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고심했던 선배들의 경험을 중시하여 송실 학풍을 진작시키고, 막연한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가 아닌, 바로 우리 내부의 연구에 힘을 기울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발굴하여 송실의 실사구시 학풍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38) 각주 31)의 인용서, 93-94쪽.

제8절. 맺는 말

19세기의 중국에는 서양의 “science” · “technology”를 ‘格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이런 용어는 다분히 儒家의 經典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로 당시 중국인들은 과학기술을 이렇게 생각하였기에 프라이는 그의 과학잡지를 중국어로 《格致彙編》이라고 칭하였다. 우리는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여러 전적의 상관성에 대해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또 표기문자의 解讀 문제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독교박물관에는 송실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의 확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왜냐하면 이들 잡지는 바로 19세기 후반기인 1870년대부터 1890년대에 걸쳐 간행되었으며 당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요 화두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개혁·개방이었다. 당시에는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로 축약되는 글로벌 경쟁논리가 지배하여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이 아시아에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의 청나라 조정과 지식인들은 서구세력에 연이어 敗戰하면서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함포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을 절감하고 있었다. 프라이어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중국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서양의 과학문물을 소개하기 위해 무려 210여 종에 이르는 洋書를 번역하였고 《格致彙編》을 간행하였는데 이 과학잡지는 완전히 프라이어 개인의 힘으로 16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중국은 물론, 한국에까지 구륙되었다.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프라이어의 12種 63冊의 전적들은 중국의 古代漢語인 文言文으로 쓰여진 것으로 주로 프라이어가 江南製造總局에 근무할 때 번역한 책들이다. 게다가 19세기에 서양의 과학문물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格致彙編》이 38冊이나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마도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가장 많은 저술의 편저자로서 존 프라이어는 우리의 곁에 있었지만 그의 譯書는 아직도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박물관 안에서 동면에 빠져왔던 것이다. 중국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양서적을 번역하여 중국의 현대화에 기여했던 프라이어의 번역정신은 아마도 서구문물에 갈급했던 韓末의 시대 상황과 實事求是의 實學을 추구하는 崇實의 교육이념에 부합되었기에 다량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실질적인 학문의 탐구를 추구하는 崇實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또한 서구의 자연과학을 소개하고 한국의 과학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 프라이어의 저술이 우리 송실에

서 사용되었다면, 이들 과학교육 교재와 최초로 아시아에 서구과학문물을 소개한 《格致彙編》의 한국기독교박물관 所藏 사실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게 한다.

프라이어의 중국 현대화에 대한 공헌은 1949년 중공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대륙에서 진행된 서구세력에 대한 청산작업으로 인해 철저히 배제되어 현재까지 중국대륙에서는 서양의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의 在華활동을 일종의 침략행위로 간주하여 연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중국의 사학자 한 사람이 서양선교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그는 이미 80에 가까운 고령으로 현재 학계에서 은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³⁹⁾. 하지만 프라이어의 행적은 중국의 시각처럼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의 중국에 대한 일관된 애정은 그가 1896년 미국 버클리 대학 동방어문학과 주임교수로 부임한 후에도 계속되었으니 그 후에도 중국어로 서양서적의 번역작업을 계속하였고 게다가 자신의 돈을 출연하여 1911년에는 한코우(漢口)에 맹아학교를 세웠고, 상하이에 농아학교를 세워 중국의 장애자들을 후원하였다. 그는 1928년 基金會를 구성하여 상하이에 여자맹인학교를 설립하여, 그의 아들 조지 프라이어(George B. Fryer)가 1950년까지 이 학교의 사무를 주관하며 장애자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프라이어는 일생 동안 중국의 근대화와 장애인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은 외국인인데, 이 프라이어의 저서가 바로 63책이나 우리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 전적들은 박물관에서 후인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김양선목사는 자신의 가족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기독교박물관을 건립하여⁴⁰⁾ 우리에게 값진 문화유산을 남겨주고 떠났지만 우리가 이 문화유

39) 중국 대륙에서 서양선교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華東師範大學校 歷史科的 顧長聲 교수로서 그는 주요한 세 권의 전문서 《傳教士與近代中國》·《容閔一向西方學習的先驅》·《從馬禮遜到司徒雷登》를 저술하여 이 분야의 독보적인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주요저서는 1950년 이전에 저술되었고, 1980년 개혁개방 이후에 다시 진행되었다. 그 이외에는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어 선교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홍콩의李志剛목사가 중국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선교사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위자이다.

40) 1947년 4월 고향에 소장했던 유물을 해로로 옮기다가 인민군의 총격으로 부인 한필려여사와 딸 김경숙양이 희생되었고, 재혼한 양성담여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니, “기독교박물관은 세 사람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다.”라고 김양선목사는 회고하였다. 임병태 저, <김양선(金良善)편>, 《인물로 본 숭실 100년》제1집(숭실대학교출판부, 1996년 2월 4판), 280-281쪽.

산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마치 프라이어의 중국에 대한 일생의 헌신이 단지 한 두 사람의 사학자에 의해 연구되어지는 것과 같이…….

프라이어의 번역사업은 당시의 중국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서양 과학기술서적의 번역으로 중국의 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20세기 초기의 량치차오와 후쓰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중국 번역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근대 중국에 있어 가장 먼저, 그리고 전면적으로 번역에 관해 언급했던 프라이어의 <江南製造總局翻譯西書史略>이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외국어문의 번역에 관해서 우리 崇實은 귀중한 역사적 사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기독교박물관의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신 김양선교수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는 시야를 가까운 곳으로 돌려 우리에게 필요한, 충실의 고유 학풍을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연구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